

# 아세안 은행의 수익성과에 대한 연구

- 법인은행을 중심으로

채상수\*, 이충열\*\*

## < 차 례 >

I. 서 론

II. 이론 및 기존연구

III. 자료 및 연구방법

IV. 실증분석

V. 결 론

- 국문 초록 -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다양한 변동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기존의 주요 역할을 하였던 북미 및 유럽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산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아세안 지역의 은행을 대상으로 수익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아세안 지역 은행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자산에 대한 순수익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회계기준인 법인기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아세안 은행들은 개도국 위주의 은행이 다수이며 기본적으로 일반 대출영업이 주요하며 외부적으로 국가의 경제규모의 증대가 주요한 요인이다. 또한 자산기준 규모의 경제에 의한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한 건전성 관리가 수익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세안의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남방정책을 위한 금융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은행, 아세안, 수익성과, 법인, NIM, ROA

\* (주저자)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강사, e-mail: ssoochae@korea.ac.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 e-mail: cllee@korea.ac.kr

# I. 서론

## 1. 연구 배경

세계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금융산업은 고도화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영향력 있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국제무역 및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기관의 국제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국가 및 개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기관 중 가장 대표적이고 기업 및 개별 가계 모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산업은 금융산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준점이 될 수 있으며 국가별 은행산업의 정책방향은 고려해야할 필수요인이 되었다.

금융기관 중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은 사무실, 지점, 자회사의 형태로 존재하며 현지 법인 인수를 통한 해외은행이 존재하게 되며 은행의 순자산에 의한 수익성과를 파악하여 해당 지역의 순수한 금융시장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지점, 자회사, 사무소 등의 비법인들은 본사의 회계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순수한 수익성으로 보기에 한계점을 가진다.

아세안 지역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신남방정책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금융정책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아세안 지역의 금융시장에는 지속성장 효과에 따라 많은 자산이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금융시장의 확장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다. 아세안 은행법인의 수익성과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때 지속적인 금융시장 발전에 대한 방향 제시가 가능하다.

개도국 위주로 이루어진 아세안 지역 은행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자본 유치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익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은행법인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목적

아세안 지역은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 주요 금융시장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또한 북미 및 유럽지역의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동아시아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비중이 높은 동북아시아 지역과 개도국 위주의 아세안 지역과의 공급사슬의 관계는 금융시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따라서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세안으로의 자산 이동을 고려할 때 법인형태의 은행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은 본사 외에도 지점, 자회사, 브랜치, 사무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기관의 자산운용의 주체는 본사(head quarter)에 있으며 예하 기관의 수익성과는 순수한 자산에 대한 수익이라고 보기 힘들다.

금융위기 이후기간인 2011년과 2017년을 대상으로 아세안 지역의 은행법인에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선진국인 아세안 은행의 수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고 은행법인의 성과요인에 대한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윤을 증대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경제에 필요한 유동성 및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성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은행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단순히 이윤 극대화만이 다가 아니기도 하다. 앞서 말한 듯이 국가경제에서 은행은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사회·경제적인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역할이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도래와 함께 순수한 이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아세안 지역에 주로 많은 개도권 금융국의 경우 은행의 사용자들은 선진국 위주의 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 지역의 은행법인의 수익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검토하고 자산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러한 로드맵은 사회재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평방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 II. 이론 및 기존 연구

### 1. 은행의 수익성 관련 이론

예금은 각종 규제비용 및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요소로써 조달비용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통화정책 및 은행규제 등은 관리비용의 증대로 은행의 수익성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금은 안전한 상품으로 시장성수신에 비해 금리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는 예금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을수록 비용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은행의 수익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자본은 자산 대비 자본(ratio of equity to total assets)의 비율로 볼 수 있으며 높은 자본의 보유는 더 많은 유동자원의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행의 수익성 성과로 이어진다. 또한 표준화된 자본 비율 규정에 따라 대출의 유동화 부분을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Berger(1995)는 자본의 보유 비중의 증대가 자본금 자체의 보유비중과는 일반적으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자본의 보유 비중 자체만으로는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증대될수록 유동성 여유자금의 증대는 자본의 비중을 오히려 증대시키고 은행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빠른 경제성장은 다수의 국가들에서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Demirgüç-Kunt and Huizinga, 1999). GDP는 경기순환의 상승과 하강을 주도하며 은행의 수익성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순환상의 변화는 GDP의 편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본당 GDP 비중의 증가는 경제발전에 영속성을 보장한다. 반면, GDP의 증대는 은행시장의 금리 경쟁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감소시켜 수익성 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은행의 대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은행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영업지역 및 업무다변화를 통한 위험 분산 및 새로운 수익원 창출 기회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대규모 조직의 경직성에 따른 비효율성 증대나 시스템 위험의 가능성 증가, 중소기업 대출의 위축

가능성 등이 은행 대형화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은행 대형화에는 득과 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적 차원의 논의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다수의 실증연구가 이루어져 왔다.<sup>1)</sup> 특히 자산규모 확대에 대표되는 은행 대형화와 비용 효율성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실증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sup>2)</sup> 반면 은행 대형화가 수익성(profitability)에 기여하는지 여부는 연구자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으며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3)</sup>

## 2. 선행 연구

Demircuc-Kunt, A.와 H. Huizinga(1999)는 1988년부터 1995년 기간 동안 80개 국가를 대상으로 대형자산을 보유한 은행과 수익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은행자산의 증가와 시장 집중도가 동반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반면 시장집중도가 낮을 경우 높은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은행일지라도 수익성은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였다.

서지용(2008)은 은행권의 수익성 지표로서 순이자마진, 비이자이익, 비용관련 지표로서의 대손충당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2년 4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로 하였다. 경기 및 금융시장변화에 대한 국내은행들의 이자부문 이익의 부침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손충당금 변화도 경기와 부(-)의 방향을 보임으로써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은행들의 대응력이 매우 취약함을 보였으며 국내은행들은 순이자마진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경기호황시기에 충당금을 늘려나가는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방식이 필요함을 보였다.

이재화 외(2009)는 은행의 겸업화에 따른 수익구조 변화에 주목하여 비이자수익 부문의 확대가 은행의 경영성과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1993~2007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비이자수익 부문의 비중이 은행의 경영성과(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와 리스크(수지변동성,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이자수익비중이 높아지면 수익기반이 강화되어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수익성이 높아지면 내부유보도 활발하여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이자수익비중 증가는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은행수지의 변동성과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효(2010)은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0년 2/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주요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자료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은 은행 내부변수중에서 총자산, 순이자마진, 총 대출규모 등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나 GDP, CPI, 콜금리, NPL(non-performing loan) 등과는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경영자들은 자산규모 확대와 같은 외형확대도 중요하지만 은행

1) Abreu, M., and V. Mendes(2001)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은행이 수익성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보였다.

2) Ben, N. S.(2003)는 은행의 대형화가 순이자수익과 수익성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였다.

3) Berger, A. N.(1995)는 1980년대 미국에서 자산과 수익성의 양(+)의 관계를 보여 전통적인 부의 관계와 상반됨을 보였다.

내부적으로 부실여신관리에 보다 많은 경영역량이 집중되어야 함을 보였다.

Iskandar, A. S., N. Che-yahya and Z. A. Wahid(2019)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말레이시아의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ROA와 ROE를 중심으로 보면 자본의 적절성은 수익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효율성, 유동성, 신용 관련 변수들이 수익성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이론과의 차별성을 주장하였다.

### Ⅲ. 자료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방법

아세안 지역에서 운영중인 법인 형태의 은행을 파악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의 모든 은행을뱅크포커스에서 별도로 분류하였다. 아세안 지역의 주요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세안 10개국을 기본 대상으로 하였다.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과 변수인 NIM과 ROA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은행의 효율성 변수인 ND(예대율)를 사용하여 은행 기관의 성과를 결정하고 예금 대비 총대출 비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LI(유동성)변수의 효과를 확인하여 은행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은행의 규모는 총자산(TAS)의 크기에 의해 나타난다. 또한 대출운용능력을 나타내는 대출비중(NLTA)의 효과를 고려하여 자산관련된 효과를 살펴보았다. 건전성 변수로는 대출손실 대비 대손충당금(LRGL) 및 총자산 대비 총자산 비율(TETA)을 사용하여 은행의 건전성 정도가 수익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부채(LA)변수를 사용하여 은행의 비용관련 건전성 변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국가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와 인플레이션(INF)을 거시환경변수로 사용하여 해당 지역의 거시적 환경요인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였다.

대상 은행은 아세안 10개국에서 운영 중인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분류하고 사무소와 지점 등을 제외한 법인은행만을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은행 자산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수익성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재정, 회계의 운영에 대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은행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은행이 존재하며 데이터 분류는 전수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데이터상의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2009년까지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세안 지역의 금융기관 현황을 2011년부터 2017년까지<sup>4)</sup>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수익성에 미치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 2. 데이터

이 연구에 사용된 대부분의 자료는 전세계 은행의 경영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Bank Focus에서 수집하였다. 또한 Bank Focus에 은행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많은

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부터는 아세안 지역에 직접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상의 은행으로만 구성된 데이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규모(GDP), 인플레이션 지수(INF)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는 IMF 및 World Bank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Total Asset은 은행 규모를 나타내는 자산변수로 사용되었다. ROA(전체 자산 대비 수익률)와 NIM(전체자산 대비 순이자 마진)을 주요 수익성과 변수로 사용하였다. 은행의 주요 경영상황에 관한 내용들은 각 은행 웹 사이트를 통하여 은행법인에 대한 소개 및 운영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표 1〉 변수 설명 및 출처

항목	요인	변수명	변수설명	기간	출처
종속변수	수익성	NIM	Net Interest Margin	2011 ~2017	Bank Focus
		ROA	Return on Assets	2011 ~2017	Bank Focus
독립변수	효율성	ND	Rate of loan to deposit	2011 ~2017	Bank Focus
		LA	Liquidity to Asset	2011 ~2017	Bank Focus
	거시환경	INF	Inflation index	2011 ~2017	IMF
		GDP	Real size of GDP	2011 ~2017	World Bank
	자본	EQU	Total Equity	2011 ~2017	Bank Focus
	자산	NLTA	Net Loans to Total Assets)	2011 ~2017	Bank Focus
		TAS	Bank Size	2011 ~2017	Bank Focus
	건전성	LRGL	Loan Loss Reserve to Gross Loan	2011 ~2017	Bank Focus
		LI	Liability	2011 ~2017	Bank Focus
		TETA	Total Equity to Total Asset	2011 ~2017	Bank Focus

### 3. 분석 방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은행성과요인들이 수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추정방정식을 아래 식(4.1)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Y_{i,t} = \alpha_i + \beta_1 BV_{i,t} + \beta_2 MV_{i,t} + e_{i,t} \quad (4.1)$$

식(4.1)에서 종속변수인 Y는 은행의 수익성과 변수인 NIM, ROA를 나타내며, BV는 은행 성과변수로서 BV=[ND, EQU, NTTA, TAS, LRGL, TETA] 이며, MV는 통제변수로서 MV=[INF, GDP]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법론에 기초하여 순서대로 진행한다. 첫 번째, 식(4.1)의 통합 최소제곱법(pooled least square method; pooled LS)를 사용한다. 이때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기 위해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t-값을 계산한다. 두 번째, 개별 국가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FEM)과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REM)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식(4.1)의 기본 모형에 관측되지 않은 지역 및 연도의 효과를 추가하면,

아래 식(4.2)와 같다. 이때 모형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한다.

$$Y_{i,t} = \alpha_i + \beta_1 BV_{i,t} + \beta_2 MV_{i,t} + \gamma_i + \delta_t + e_{i,t} \quad (4.2)$$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수익성과요인에 따른 동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가 제안한 동태적 패널분석의 방법 중에서 시스템 GMM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동태적 패널 모형은 종속변수의 과거 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며, 일반적인 패널의 선형회귀 모형은 아래의 식(4.3)과 같다.

$$Y_{i,t} = \alpha_i + \beta_1 Y_{i,t-1} + \beta_2 MV_{i,t} + u_{i,t} \quad (4.3)$$

$$u_{i,t} = v_i + e_{i,t}$$

( $u_{i,t}$ : 오차항,  $u_i$ : 개별국가 특성효과,  $e_{i,t}$ : 확률적 교란항)

일반적으로 패널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의 경우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설명변수로 사용됨에 따라 두 모형 모두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서 발생하는 비일치추정량(inconsistent estimation)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치 추정치(consistent estimates)를 얻기 위하여 동태적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Arellano and Bond(1991)의 1차 차분 동태적 일반화된 적률법(first difference dynamic GMM)은 식(4.3)와 같은 1차 차분 모형을 사용하는 차분 GMM으로, 차분되지 않은 수준 시차변수들을 1차 차분된 모형의 내생적 설명변수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일치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이다.

$$TRIANGLEY_{i,t} = \beta_1 TRIANGLEY_{i,t-1} + \beta_2 TRIANGLEX_{i,t} + TRIANGLEe_{i,t} \quad (4.4)$$

이후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은 GMM을 이용한 동태적 패널 모형을 더욱 발전시켜 종속변수의 수준변수와 차분된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System GMM을 제안하였다. System GMM은 식(4.3)과 같은 수준방정식과 식(4.4)의 차분방정식을 결합하는 추정형태로, 1차 차분방정식에서는 설명변수의 수준시차 변수를, 수준방정식에는 설명변수의 차분시차 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이에 추가적인 도구변수를 사용하는 System GMM이 기존 차분 GMM보다 효율적인 일치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도구변수를 사용함에 있어 시차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의 검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 설정 및 도구변수 사용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Sargan 검정을 실시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내생적 설명변수의 수보다 도구변수의 수가 많을 경우 과대식별 추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Hansen 검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과대식별 검정의 귀무가설은 선택된 모든 도구 변수들이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만약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 과대식별된 모형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Sargan 검정의 경우 오차항이 iid(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일 때만 유효한 검정이며, 이분산성의 문제 때문에 Sargan 검정결과

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Hansen 검정방법을 통해 모형 및 도구변수 사용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표본에 따라 대다수의 경우에 Hansen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자기상관테스트(AB)를 통과하지 못하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System GMM 대신 Dynamic GMM을 사용하기로 한다.

## IV. 실증 분석

### 1. 아세안 은행의 수익성 요인 분석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아세안 지역의 은행기관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은행 성과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수익률 분석을 위한 공동 회귀 분석 모형인 Pooled Least Squares를 사용한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 분석은 은행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정 효과를 분석한 다음 동북 지역의 전체 지역과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행 수익성의 동적 효과를 고려한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강건성을 검토한다.

<표 2> 기초통계(NIM)

변수	NIM	ND	NLTA	LI	LA	LRGL	INF	GDP	TAS	TETA
평균	4.1	98.0	59.0	17.0	23.2	3.4	331.3	26.6	1499.3	16.0
중간값	3.5	79.0	62.9	17.3	20.1	1.8	255.0	26.6	1488.5	12.4
최대값	32.7	998.6	97.8	20.6	81.3	100.0	919.0	27.7	2114.2	156.1
최소값	-4.7	0.0	0.0	11.5	0.2	0.0	4.8	22.9	911.6	-20.4
표준편차	3.6	95.3	19.5	1.5	16.5	7.2	230.8	1.0	189.9	13.2
왜도	2.5	4.6	-0.9	-0.7	1.3	9.3	0.8	-1.5	0.1	3.5
첨도	16.5	30.5	3.9	3.7	4.6	112.0	2.8	5.6	3.2	22.0
관측치	1213	1213	1213	1213	1213	1213	1213	1213	1213	1213

<표 3> 상관관계(NIM)

변수	NIM	ND	NLTA	LI	LA	LRGL	INF	GDP	TAS	TETA
NIM	1									
ND	0.000	1								
NLTA	0.259	0.508	1							
LI	-0.061	-0.037	0.025	1						
LA	-0.034	-0.029	0.054	-0.440	1					
LRGL	0.043	-0.057	-0.142	0.014	-0.036	1				
INF	0.035	0.033	0.022	-0.048	-0.029	0.008	1			
GDP	0.074	-0.038	-0.016	0.103	0.075	-0.015	0.786	1		
TAS	-0.196	0.070	0.062	-0.121	-0.064	0.037	-0.182	0.109	1	
TETA	0.119	0.467	-0.332	-0.010	-0.064	0.251	-0.018	-0.032	-0.447	1

<표 4> 기초통계(ROA)

변수	ROA	ND	NLTA	LI	LA	LRGL	INF	GDP	TAS	TETA
평균	1.3	98.0	59.5	17.0	23.1	3.3	330.2	26.6	1504.2	16.0
중간값	1.1	79.2	63.2	17.4	20.0	1.8	255.0	26.6	1496.4	12.3
최대값	18.6	998.6	97.8	20.6	81.3	100.0	919.0	27.7	2114.2	156.1
최소값	-9.7	0.0	0.0	11.5	0.2	0.0	4.8	22.9	911.6	-20.4
표준편차	2.1	93.3	19.1	1.5	16.5	7.3	228.7	1.0	191.5	13.2
왜도	2.4	4.7	-1.0	-0.7	1.3	9.4	0.8	-1.5	0.1	3.5
첨도	24.9	32.4	4.0	3.7	4.7	110.9	2.9	5.7	3.2	22.6
관측치	1143	1143	1143	1143	1143	1143	1143	1143	1143	1143



〈표 5〉 상관관계(ROA)

변수	NIM	ND	NLTA	LI	LA	LRGL	INF	GDP	TAS	TETA
NIM	1									
ND	0.122	1								
NLTA	0.049	0.517	1							
LI	-0.025	-0.039	-0.010	1						
LA	-0.061	-0.027	0.051	-0.442	1					
LRGL	0.073	-0.081	-0.142	0.005	-0.033	1				
INF	0.048	0.035	0.046	-0.054	-0.035	0.017	1			
GDP	0.016	-0.051	-0.002	0.102	0.077	-0.023	0.787	1		
TAS	0.092	0.049	-0.002	-0.113	-0.056	0.013	-0.178	0.071	1	
TETA	0.099	0.445	-0.323	-0.009	-0.056	0.255	-0.004	-0.039	-0.483	1

## 2. 아세안 법인은행의 수익성과 분석

### (1) 아세안 지역의 법인은행의 수익성과 요인 분석

다음의 표는 아세안 지역의 법인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타낸다. 아세안 지역에서 운영중인 법인은행의 순이자 마진(NIM)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Pooled 분석에 의한 결과들은 몇몇 변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은 NIM에서의 계수값이 ROA에서의 계수값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세안 은행법인들은 은행의 수익성과에 있어 이자수익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비이자 요인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IM 모형에서 은행의 건전성 및 은행의 운용 관련 변수인 자산 대비 대출금 비중(NLTA)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효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출의 증가가 은행의 수익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출 대비 자산비의 증가는 대부분의 수행여신(performing loan)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비용변수인 LI(부채)를 살펴보면 모든 모형에서 NIM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ROA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있다. 따라서 은행법인의 효율성이 증가할 경우 금융자산에 의한 수익성을 증가시키지만 은행의 운영 전반에 관련된 비이자 수익의 증가와는 별다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GDP의 경우를 살펴보면 NIM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아세안 지역의 은행법인은 해당국가의 경제규모 증가가 은행의 이자수익에 일관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은행법인들은 대부분 개도국 위주의 금융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인 경제규모의 변화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자산 관련 변수인 TAS를 살펴보면 NIM과 ROA에 미치는 효과가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규모의 증대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가지지 못하며 이자수익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금융시장의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7> 아세안 지역의 은행기관 수익성 요인 분석

변수	아세안					
	종속변수					
	Pooled		Paneled		GMM	
	NIM	ROA	NIM	ROA	NIM	ROA
			Fixed	Fixed	Fixed	Fixed
ND	0.000 (0.001)	<b>0.003***</b> (0.000)	0.000 (0.002)	<b>0.003**</b> (0.001)	0.001 (0.002)	0.002 (0.001)
NLTA	<b>0.055***</b> (0.002)	<b>0.006***</b> (0.001)	<b>0.054***</b> (0.007)	0.006 (0.005)	<b>0.054***</b> (0.008)	<b>0.012**</b> (0.005)
LI	<b>-0.150***</b> (0.037)	<b>-0.038**</b> (0.017)	<b>-0.154**</b> (0.068)	-0.045 (0.515)	<b>-0.169**</b> (0.073)	-0.043 (0.053)
LA	<b>-0.007***</b> (0.001)	<b>-0.008***</b> (0.001)	-0.007 (0.005)	-0.007 (0.004)	-0.008 (0.006)	-0.007 (0.004)
LRGL	<b>0.021**</b> (0.009)	<b>0.021**</b> (0.009)	0.021 (0.027)	0.023 (0.027)	0.020 (0.028)	0.025 (0.028)
INF	<b>0.000***</b> (0.000)	<b>0.007***</b> (0.001)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GDP	<b>0.383***</b> (0.046)	0.052 (0.010)	<b>0.381**</b> (0.148)	<b>0.217**</b> (0.105)	<b>0.382**</b> (0.160)	<b>0.261**</b> (0.116)
TAS	<b>-0.004***</b> (0.000)	<b>0.001***</b> (0.000)	<b>-0.004***</b> (0.000)	<b>0.001***</b> (0.000)	<b>-0.004***</b> (0.000)	<b>0.001***</b> (0.000)
TETA	<b>0.042***</b> (0.004)	<b>0.021***</b> (0.003)	<b>0.041***</b> (0.014)	<b>0.023**</b> (0.011)	<b>0.044***</b> (0.016)	<b>0.031**</b> (0.014)
C	-1.368 (1.324)	<b>-2.455***</b> (0.863)	-1.204 (4.019)	<b>-6.251**</b> (2.641)	-1.418 (4.416)	<b>-7.683***</b> (2.965)
obs	1213	1143	1213	1143	1079	986
Num. of Banks	268	267	268	267	268	266
R2	0.195	0.077	0.199	0.088	0.203	0.087
Hauseman			35.694 [0.000]	38.859 [0.000]		
Sargan					0.000	0.000
Hansen					0.995	0.987

주 : ( )는 표준 오차를 의미하며, \*\*\*는 1%, \*\*는 5%의 유의수준을 각각 의미함.

## (2) 은행법인의 수익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

NIM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NLTA, LI, GDP, TAS, TETA는 비교적 일관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비중(NLTA)이 증가할 경우 아세안 은행법인의 금융수익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비용관련 변수인 LI의 증가는 금융수익성과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거시환경변수인 GDP를 보면 NIM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데 아세안 지역의 경제규모의 증대는 금융수익성과를 증대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 자산변수인 TAS를 보면 아세안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증대는 NIM에서 음(-)의 효과를 보이며 반면 ROA(+)에서는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세안 금융시장

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은행의 건전성 변수인 TETA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양(+)의 결과를 보여 수익성과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8〉 아세안 지역의 법인은행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Variable	ASEAN					
	Pooled		Paneled		GMM	
	NIM	ROA	NIM	ROA	NIM	ROA
ND		(+)		(+)		
NLTA	(+)	(+)	(+)		(+)	(+)
LI	(-)	(-)	(-)		(-)	
LA	(-)	(-)				
LRGL	(+)	(+)				
INF	(+)	(+)				
GDP	(+)		(+)	(+)	(+)	(+)
TAS	(-)	(+)	(-)	(+)	(-)	(+)
TETA	(+)	(+)	(+)	(+)	(+)	(+)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는 모든 NIM 모형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며 일관적인 유의성을 보이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 국가에서의 경제성장은 은행의 수익성과에 직접적인 외부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한편, 유동성(LA)과 대손충당비(LRGL) 또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데 아세안 금융시장은 대규모 자본에 의한 수익보다는 기본적인 일반대출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아세안 은행법인의 수익성 요인에 미치는 유의성

아세안 은행법인의 수익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강건성 기준으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모든 분석모형에서 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 강건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가장 강건한 모형의 경우를 별도 표기하였다. 전반적으로 자산변수인 TETA 및 효율성 변수인 NLTA가 NIM 모형에서 가장 강건한 효과를 가진다. 은행의 대출과 건전성이 수익성과를 결정하는 주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거시환경변수인 GDP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세안 지역의 성장은 금융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자산변수인 TAS는 유의하지만 NIM과 ROA에서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산규모의 증대는 비이자수익을 증대시키고 이자수익 부문을 감소시켜 금융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NLTA, GDP, TETA의 강화는 아세안 금융시장의 확산 요인이 될 수 있으며 LI, TAS의 강화는 위축요인이 될 수 있다.

5) Tan and Floros(2012)는 중국 내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GDP 성장이 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심화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표 11〉 아세안 법인은행의 수익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수	ASEAN	
	NIM	ROA
ND		중(+)
NLTA	강(+)	중(+)
LI	강(-)	약(+)
LA	약(+)	약(+)
LRGL	약(-)	약(-)
INF	약(-)	약(-)
GDP	강(+)	중(+)
TAS	강(-)	강(+)
TETA	강(+)	강(+)

\* 모든 모형, 두가지, 한가지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각 강, 중, 약으로 표기

\* 모두 1% 미만의 유의성을 가질 경우 진한 배경으로 표기

## VI. 결론

세계경제가 다양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아세안 지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아세안 지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경제 북미와 유럽경제 등 글로벌 경제가 한계점에 접하면서 경제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세계경제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변동성이 야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금융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속성장 가능성을 가진 아세안의 금융시장에 대한 자본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세안 은행법인의 금융수익성에 미치는 요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의 금융 수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양적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NLTA, GDP, TAS, TETA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관련 변수인 NLTA는 자산 대비 대출 비중으로서 은행의 경영기법과 관련이 있다. 은행이 어떠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특히, NIM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일관적인 양(+)의 효과를 미치는데 NIM의 증가에 기여한다. 따라서 아세안 은행법인의 경영기법의 향상은 은행기관의 고도화를 유발한다. TAS는 전체자산 규모로서 은행의 규모를 대변하는 변수이다.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NIM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ROA에는 양(+)의 영향을 유의하게 미친다. 이는 비이자수익을 증대시키고 이자수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로써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예·대금 수익성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아세안 금융시장 축소의 요인이 된다.<sup>6)</sup> 아세안 지역 은행법인들은 전반적인 운영과정에서 자산

6) 비이자수익의 증대는 금융자산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며 은행의 예금 및 대출 이자의 격차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며 이자수익의 증대는 예금 및 대출이자 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짐

에 의한 규모의 경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경제규모(GDP)가 증가할수록 금융수익성도가 증가한다는 이론과 더불어 아세안 금융시장에서는 해당국가의 경제규모의 증가가 은행법인의 수익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개도국 위주의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성에 따라 경제규모의 증가가 유의한 양(+)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경제성장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 지역의 금융시장을 은행법인 위주로 살펴보았을 때 대출과 건정성에 대한 경영능력이 수익성에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더불어 국가경제의 성장능력이 외생적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규모, 유동성, 예대율 등은 유의하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소형 은행이 대출위주의 영업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세안 금융시장은 신남방정책의 주요 시장으로써 제조업 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에 대한 협력도 더욱 증대되어 우리나라와의 지속적인 상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대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세안 금융시장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신남방정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희창, (2004).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 및 수익성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서지용, (2008), “은행수익성과 경기 및 금융시장변화와의 관련성 연구”, *재무와 회계정보 저널*, 제10권 제4호, 93-110.
- 이재화, 곽병진, 박광우, 박래수, (2009), “겸업화와 은행의 경영성과 : 66개 상업은행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 *증권학회지*, 제38권 제1호, 53-75.
- 홍정, 고보현, (2010),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2호, 889-906.
- Abreu, M., and V. Mendes(2001), “Commercial bank interest margins and profitability : evidence from some EU countries”, In: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Pan-European Conference Jointly Organised by the IEFS-UK & University of Macedonia Economic & Social Sciences*, Thessaloniki, Greece, May 17-20.
- Angebazo, L.(1997), “Commercial bank net interest margins, default risk, interest-rate risk, and off-balance sheet banking”,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1, pp. 55-87.
- Ben, N. S.(2003), “The determinants of the Tunisian banking industry profitability: panel evidence,” In: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Economic Research Forum (ERF) 10th Annual Conference, Marrakesh-Morocco*, December 16-18.
- Berger, A. N.(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earnings in banking,” *Journal of Money Credit Bank*, 27, 432-456.
- Bourke, P.(1989), “Concentration and other determinants of bank profitability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ustralia”,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3, pp. 65-79.
- Demirguc-Kunt, A. and H. Huizinga(1999), “Determinants of commercial bank interest margins and profitability: some international evidenc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3, pp. 379-408.
- Iskandar, A. S., N. Che-yahya and Z. A. Wahid(2019), “Determinants of commercial bank profitability in Malaysia,” *Journal of Enterprenurship and Business*, 7(1), 27-39.
- Khrawish, H. A., (2011), “Determinants of commercial banks performance: Evidence from Jordan”, *International Research Journal of Finance and Economics*, 81, 148-159.
- Kosmidou, K., S. Tanna and F. Pasiouras, (2005), “Determinants of profitability of UK domestic banks: panel evidence from the period 1995-2002,” In: *Proceedings of the 37th Annual Conference of the Money Macro and Finance (MMF) Research Group*, Rethymno, Greece, September 1-3.
- Mamatzakis, E. C., P. C. Remoundos, (2003), “Determinants of Greek commercial banks profitability,” *Spoudai*, 53(1), pp. 84-94.
- Molyneux, P. and J. Thornton(1992), “Determinants of European bank profitability: a not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6(6), pp. 1173-1178.
- Pasiouras, F., K. Kosmidou, (2007), “Factors influencing the profitability of domestic and foreign commercial banks in the European Union,”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21, pp. 222-237.
- Gul, S, F, Irshad, K. Zaman, (2011), “Factors Affecting Bank Profitability in Pakistan”, *Romanian Economic Journal*, 14, pp. 39-61.
- Short, B. K., (1979), “The relation between commercial bank profit rates and banking concentration in Canada,” *Western Europe and Japan. J. Bank. Finance*, 3, pp. 209-219.
- Staikouras, C. H., G. Wood(2003), “The determinants of bank profitability in Europe,” In: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European Applied Business Research Conference*, Venice, Italy, June 9-13.
- Fu, X, S. Heffernan, (2007), “Cost X-efficiency in China's banking sector”, *China economic review*, 18(1), pp. 35-53.